

제목: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세상이 나를 \_\_\_\_\_ 있기 때문입니다. (3절)
2.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_\_\_\_\_ 않기 위함입니다. (4절)
3. 하나님을 \_\_\_\_\_하기 때문입니다. (5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b>합계</b>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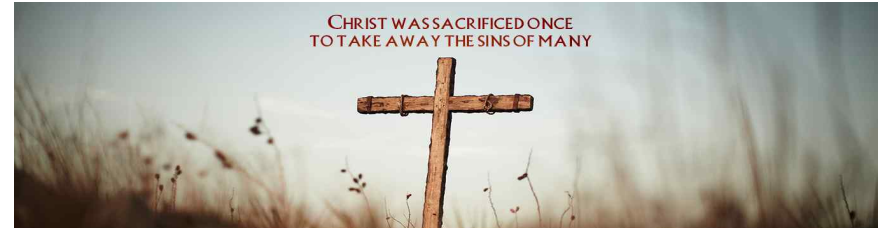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요한일서 2장 1-6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John 2: 1-6 신약 388 페이지 Presider
- 말씀 .....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귀여운 강아지 때문에)

요즘 들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전에 생각하던 동물을 키우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이전에는 마당에서 키우고 놀아서 키웠지만 지금은 집 안에서 키우고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키운다. 그래서 그런지 개들이 많이 온순해 진 것을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만이 가지고 있는 야성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전에는 많이 달랐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개를 키웠던 나의 어린 절에 개는 그냥 개에 불과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복 날에 잡혀 먹히지 않으면 복이 있는 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개가 가족이다.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개를 때리면 사람을 때린 것과 같이 재판을 받고 혹시 개를 죽이더라도 하면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가운데 개를 키우는 주인은 개에게 옷을 해서 입히고, 신발을 사주며, 온갖 특별한 먹을 것과 놀이 기구를 구입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 개가 그것을 다 알까? 그렇게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개는 결국 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에게 공을 들이는가?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 개가 춤고, 자신의 생각에 개가 그 음식을 좋아하며, 주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칭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것에 마음을 전부 쏟아서 만족과 자랑으로 데리고 다닌다.

사랑이 많이 필요한 세상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작은 동물에 그렇게도 집착하며 살게 되었을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을 쏟고 받으며 강아지와 함께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시라도 그 강아지에게 쏟아내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닌가? 또한 나의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은 없는가? 그래서 애 하나를 키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 한 구석에 개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크리스천은 없을까?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교회 예배를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강아지를 보아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은 키우는 강아지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강아지가 나를 필요로 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하셨다. 나에게 그 강아지는 없는가? 돌아보아야겠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추수 감사주일

돌아오는 주일 (20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 합니다.

### 6. 추수 감사주일 식사

올해 추수 감사주일(20일)에는 예배 후 교회에서 모두 함께 친교하며 식사합니다. 미리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